Overture "Leonore" No. 3, Op. 72b

- □□

정보

개요
곡명: Overture "Leonore" No. 3, Op. 72b
작곡가: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작곡 시기: 1806년
초연: 1806년 3월 29일, Theater an der Wien에서 열린 2막 개정판 Leonore 의 상연
장르: 오페라 서곡이면서 독립적으로 연주되는 단악장 관현악 작품
범위: C장조의 Adagio – Allegro 전곡

IMSLP: Leonora Overture No. 3, Op. 72b (Beethoven, Ludwig van)

Wikipedia: Leonore Overture No. 3

Overture "Leonore" No. 3, Op. 72b 는 Ludwig van Beethoven이 1806년 2막 오페라 Leonore 의 개정 상연을 위해 쓴 단악장 관현악 서곡이다. 이 글은 오페라에서 분리되어 연주되는 서곡 전곡을 다루며, 작품은 느린 Adagio 에서 빠른 Allegro 로 이어진다. 오페라의 중심 사건은 Leonore가 Fidelio 라는 이름으로
변장해 감옥에 들어가 남편 Florestan을 구하는 일이며, 서곡은 이 구출과 해방의 진행을 관현악으로 압축한다

.

출판 정보와 자료

Beethoven-Haus와 Helga Lühning의 Henle 비평판은 이 곡을 1806년 개정판 Leonore 의 서곡 3번으로 구분한다. 1805년 3막 초연에 사용된 서곡은 No. 2였고, 1807년 프라하 공연을 위해 계획된 No. 1은 실제 공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번호는 작곡 순서나 실제 초연 순서를 뜻하지 않는다.

1810년 가을 Leipzig의 Breitkopf & Härtel에서 나온 초판은 Beethoven의 요청으로 제작된 관현악
파트판이었다 . 최초의 완전한 총보는 1828년에 같은 출판사에서 plate 4566으로 나왔으며, Library of Congress의 Beethoven-Haus 소장 목록은 이를 83쪽의 C장조 총보로 확인한다. 현재의 비평적 접근은 Helga Lühning이 편집한 New Beethoven Complete Edition IX/1(2017)을 바탕으로 한 Henle HN 9046과 Bärenreiter BA 88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필 스케치와 자필 총보, 작곡 과정을 설명하는 Beethoven의 편지는 남아 있지 않다. Prague copyist manuscript, 1810년 파트판, 후대의 필사본과 사후 총보를 함께 대조해야 하므로, 현행 악보의 모든 기호를 Beethoven의 마지막 결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무대 밖 트럼펫 신호는 자료에 따라 파트 수와 박자 처리가 다르게 남아 있다.

소요 시간

전곡은 보통 약 14분이다. 실제 기록은 지휘자와 판본, 반복 여부, 녹음 매체에 따라 13분대 후반에서 14분대 초반까지 달라진다. 예를 들어 Otto Klemperer와 Philharmonia의 1954년 녹음은 13분 40초로 기록되지만, 이 수치를 모든 연주에 적용되는 고정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편성

악기군	편성
목관	`flute 2`, `oboe 2`, `clarinet 2`, `bassoon 2`
금관	`horn 4`, `trombone 3`
트럼펫	자료에 따라 `trumpet 2` 또는 `trumpet 3` 중 한 대를 무대 밖에 둔다.
타악기	`timpani`
현악기	`violin I`, `violin II`, `viola`, `cello`, `double bass`

Boston Symphony Orchestra의 간략한 편성표는 트럼펫 2대를 적고, IMSLP는 3대 가운데 1대를 무대 밖으로 정리한다. Henle의 비평 주석은 1810년 파트판에 `TROMBE in B`, `Auf dem Theater`라고 적힌 같은 내용의 두 파트가 겹쳐 있으며, `colla parte`와 `a tempo` 또는 `Tempo I` 표기가 신호를 한 명의 독주 트럼펫이 자유롭게 연주할 가능성을 열어 둔다고 설명한다. 실제 편성은 사용하는 판본이 제시하는 파트와 무대 배치에 따라 달라지며, 이 자료 차이는 하나의 숫자로 평탄화할 수 없다. 이 서곡 자체에는 성악가나 합창이 참여하지 않는다.

오페라 개정과 서곡의 관계

Beethoven은 `Leonore`를 여러 차례 고쳤고, 현재의 네 서곡은 서로 다른 공연 상황에 놓인다.

- 1805년 3막 초연에는 `Leonore` No. 2가 사용되었다.
- 1806년 오페라를 2막으로 줄인 개정판을 위해 새 서곡을 썼고, 이 작품이 3월 29일 처음 연주된 No. 3이다.
- 1807년 프라하 공연을 계획하며 쓴 No. 1, Op. 138은 공연이 성사되었다는 기록이 없으며 Beethoven 생전에 연주되지 않았다.
- 1814년 최종 `Fidelio`는 음악과 대본을 다시 고친 새 버전이었고, 그 서곡도 No. 3의 개정판이 아니라 별도로 작곡된 `Fidelio` Overture였다.

이 연대와 작품 관계에 따르면 `Leonore` No. 3은 1806년 개정판의 서곡이며, 1814년 최종 `Fidelio`에는 별도의 `Fidelio` Overture가 놓인다. No. 3은 Beethoven 생전부터 극장과 콘서트에서 따로 연주되었고 이후 독립적인 관현악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단악장의 진행과 무대 밖 신호

느린 Adagio 는 감옥에 갇힌 Florestan의 상황과 연결된다. Boston Symphony Orchestra는 이 도입부를 오페라의 어두운 감옥 장면과 관련짓고, Elbphilharmonie 프로그램 노트는 A플랫에서 나타나는 Florestan의 아리아 In des Lebens Frühlingstagen 선율을 청취 가능한 표지로 설명한다. 이 연결은 두 프로그램 노트가 오페라의 줄거리와 음악을 함께 해설한 내용이며, Beethoven이 각 대목에 확정적인 장면 지시를 남겼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Allegro 가 시작되면 오페라의 행동과 구출 계획이 앞으로 나아간다. BSO와 Elbphilharmonie는 느린 도입, 빠른 행동, 무대 밖 트럼펫 신호, C장조의 환희에 찬 종결을 작품을 따라가는 큰 표지로 제시한다. 세부적인
조성 경로와 마디별 형식은 남아 있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이 글에서 다시 구성하지 않는다.

무대 밖 트럼펫은 오페라에서 장관 Don Fernando의 도착과 Florestan의 구출을 알리는 신호와 연결된다. Henle의 비평 주석은 이 신호가 오페라 4중창 Er sterbe 의 음악을 인용하며, 272–277마디와 294–299 마디에서 파트 수와 자유 박자 처리가 편집상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 무대 위 오케스트라와 떨어진 곳에서 들리는 트럼펫은 감옥 안의 음악에 외부 세계가 개입하는 사건이 되며, 그 뒤의 C장조 종결은 구출이 공적인 해방의 장면으로 확장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연 배치와 녹음의 사례

후대의 Fidelio 공연에서는 Leonore No. 3을 오페라의 여러 위치에 삽입하는 관행이 생겼다. Wiener Staatsoper의 Franz Welser-Möst 인터뷰는 Otto Nicolai가 이 서곡을 2막 앞에 삽입했고 Gustav Mahler가 마지막 장면 앞의 위치로 옮겼다고 전한다. Welser-Möst 역시 한 제작에서 이 서곡을 빼 보았다가 마지막에
추가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느껴 Mahler의 위치를 택했다고 말한다. 이는 특정 제작과 지휘자의 선택을 보여
주는 사례이며, Beethoven이 1814년 최종 Fidelio 에서 정한 배치는 아니다.

초기 음반은 당시 매체의 길이 제약을 드러낸다. 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의 연구는 1911년 5월 Weyersberg와 Blüthner-Orchester가 네 면에 걸쳐 무삭제로 녹음한 사례와, 같은 시기 세
면으로 줄인 축약판들을 구분한다. 이 차이는 초기 녹음 기술이 장시간 관현악을 기록한 방식에서 비롯된
매체상의 구분이다.

Otto Klemperer와 Philharmonia가 1954년 Kingsway Hall에서 녹음한 사례는 Naxos Historical 8.111303 으로 확인된다. MusicWeb International의 비평은 느린 시작을 감옥의 소리 그림으로 듣고, Florestan
선율과 멀리서 들리는 트럼펫의 공간감을 언급한다. 이 공간감은 해당 비평가의 청취 서술이며, 모든 연주에 적용되는 해석 기준은 아니다. Leonard Bernstein과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의 1976년 실황, Mirga Gražinytė-Tyla와 Deutsche Kammerphilharmonie Bremen의 2022년 발매도 이 작품이 서로 다른 시대의 콘서트 레퍼토리로 이어졌음을 확인하는 자료다.

Mahler의 재관현악판도 별도로 존재한다. Michael Francis와 Deutsche Staatsphilharmonie Rheinland-Pfalz의 2021–2023년 녹음에 포함된 Capriccio C5484는 Beethoven의 1806년 원곡이 아니라 Mahler Re-Orchestrations 의 일부다. 따라서 이 음반의 관현악 배치를 Beethoven 원전의 편성과 합쳐 설명하지 않는다.

주요 자료

Beethoven-Haus Bonn, Fidelio 와 Leonore 서곡 2·3 작품 정보

Beethoven-Haus Bonn, Leonore 서곡 1번 Op. 138 작품 정보

- Helga Lühning □□ , Henle HN 9046 □□ □ □□□ □□ ·□□
- Bärenreiter BA 8833, `Leonore` Overture No. 3 full score
- Library of Congress, 1828□ Breitkopf & Härtel □□ plate 4566 □□
- Boston Symphony Orchestra, `Leonore` Overture No. 3 □□
- Elbphilharmonie Mediatheque, Philharmonia Orchestra □□□ □□
- Wiener Staatsoper, Franz Welser-Möst □□□
- 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 □□□ □□ □□
- Naxos Historical 8.111303, Otto Klemperer·Philharmonia
- BR-KLASSIK 900228, Leonard Bernstein·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 Deutsche Grammophon, Mirga Gražinytė-Tyla·Deutsche Kammerphilharmonie Bremen
- Capriccio C5484, `Mahler Re-Orchestrations`